

## 인도네시아 정당체계의 연속성과 정치균열의 문제:

도시부문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최 정 욱\*\*

### I. 서론

인도네시아의 정당체계는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독립 이후 지금까지 변화가 없이 모든 민주적 선거에서 다당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인도네시아 역사상 첫 민주적 선거로 꼽히는 1955년 선거에서도 그러하였고 1997-98년 경제위기 과정에서 시작된 민주화 이후 선거에서도 여전히 다당제가 두드러진다. 이러한 인도네시아 정당체계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나아가 이러한 정당체계가 단순히 구조적으로 혹은 숫자상으로 다수라는 점에서 연속적이라는 것만이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과거나 지금이나 정당체계는 지속성을 보인다고 주장한다. 즉, 과거에 정당체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던 분열구도인 이슬람주의와 민족주의(비이슬람주의) 간의 대결과 이슬람 내에서의 전통주의와 근대주의 간의 분열은 오랜 기간의 권위주의 기간을 거치면서도 변함없이 정당분열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King 2003).<sup>1)</sup>

\* 이 논문의 초고는 2013년 8월 하계 한국정치학회 겸 2013 한국정치세계학술대회 발표하였다. 초고에 대해 논평을 하여주신 이재현 박사와 다른 익명의 3명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

\*\*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drchoi@konkuk.ac.kr

1) 여기서 말하는 정당체계의 연속성은 개별 정당의 연속성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이러한 연속성의 연구에서 대표적으로 빠져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권위주의 시기이다. 이 시기의 정당체계는 그냥 역사의 블랙박스로 남겨두거나 아니면 선거 자체를 비민주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아예 무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수하르토 이전과 이후 정당체계의 연속성에 관한 연구는 어떻게든 수하르토 시기의 정당체계와 그와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에 의해서 보완되어야 한다. 우선 단순히 권위주의 시기를 역사적인 에피소드로 치부하기에는 매우 긴 기간이고 이른바 권위주의 시기에도 완전히 공정한 선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엄연히 어느 정도 경쟁적인 선거는 존재하였다. 수하르토의 집권기에 집권당인 골카르(Golkar) 이외의 다른 정당들이 얻은 표는 최대 38%에 이른 적도 있다. 둘째로 이러한 수하르토의 권위주의 시기에 일어난 엄청난 사회경제적인 변화를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다. 오늘날 중진국 대열에 합류한 인도네시아의 사회경제적 기초를 닦은 시기가 바로 수하르토의 권위주의 시기이다. 수하르토 이전과 이후의 인도네시아는 도시화를 비롯한 사회경제적 지표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어떻게든 민주화 이후의 정당체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1955년 선거 이후와 수하르토 집권기에 과거의 정당체계를 새롭게 짜려는 정치적인 노력이 있었다. 이러한 노력의 대표적 흔적이 바로 골카르 정당의 등장이고 공산당과 급진 이슬람 정당인 마스유미(Masyumi)의 제거이다. 수하르토 이전의 정치지형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플레이어가 존재하고 또 과거에 매우 강력한 플레이어였던 정당이 현재는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오는 정당체계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면들을 새롭게 감안하여 인도네시아의 정당체계의 연속성 테제는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

---

따라서 여기서는 개별정당의 계보나 지도부나 정당의 역사적 동일성 문제를 검토하지 않는다. 이보다 구조적인 문제로서의 정당체계의 연속성을 논하고 있을 뿐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인도네시아 대도시에서 추출한 대면 설문조사 자료를 가지고 인도네시아의 정당체계의 연속성과 그 속에 드리워진 권위주의 시대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은 인도네시아 정당체계의 연속성에 관한 기존 연구를 간단히 검토한 다음에, 인도네시아 정당체계의 변화를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이행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볼 것이다. 인도네시아 최대 일간지인 콤파스에서 실시한 5대 대도시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개별 대면 설문조사에 기반한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는 인도네시아 권위주의 시대와 민주화 시기의 정당체계 간의 연속성과 단절의 문제를 재검토하여 볼 것이다.

## II. 정당체계의 연속성에 관한 기존 문헌 검토

인도네시아 정당체계에 관한 최근의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권위주의 이전과 이후의 연속성 테마이다. 이것과 관련한 연구 중 가장 주목할 글은 킹(King 2003)의 것이다. 그는 1955년과 1999년 선거가 갖는 수많은 유사점과 공통점을 지적하였다. 그 중에서도 이론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것은 시기적으로 매우 동떨어져 있는 두 선거에서 인도네시아 투표자의 행태를 설명하는 공통요인이 존재한다는 주장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비교 가능한 선거자료가 남아 있는 표본 지역을 중심으로 두 선거의 결과를 검토한 다음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한다. 첫째 1999년 선거에서 과거 민족주의 정당들과 이슬람 정당들 간의 기본적인 균열이 변함없이 동일 지역에서 재등장하였다고 주장한다. 둘째, 이슬람 진영 내에서의 전통주의자와 근대주의자들 간의 분열이 1999년에도 여전히 동일 지역에서 발견된다는 것이다. 물론 그는 근대주의자 진영이 과거보

다는 더 많이 분열되어 있다는 점과 과거 민족주의 진영 내에 존재 하였던 계급 균열이 공산당이 제거됨으로써 조직적으로 표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한다(King 2003: 134).

이렇게 1999년의 선거결과를 1955년에 연결함으로써 킹은 또 다른 사실을 부각하고자 한다. 그는 1999년 선거와 이로 인하여 탄생한 정당체계는 수하르토 권위주의 통치기간인 신질서(New Order)에서 시도하였던 인도네시아 정당체계의 개편 노력이 실패하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본다. 즉, 그는 신질서에서 통합이념인 판 짜실라(Pancasila)를 중심으로 과거 정당 간의 분열을 완화하거나 골 카르를 중심으로 새로이 통합을 하려던 시도는 실패하였다고 본다. 그는 또한 골카르 정당이 통합정당을 표방하였지만 사실 골카르는 근대주의와 전통주의 분열을 극복하지 못하고 대체로 근대주의 무슬림한테서 지지를 받았고 비이슬람세력과 이슬람 세력 간 분열을 완화하였다고 보다는 기독교인들한테서 지지를 받았다고 한다(King 2003: 134). 따라서 그의 요지는 현재 인도네시아 정당체계는 권위주의 이전 정당체계의 유산을 물려받은 것이고 그 속에서 수하르토 권위주의 시대의 유산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슬람과 세속 세력 간의 분열과 이슬람 내부 분열이라는 요인, 즉 태생적인 요인인 종교적인 요인을 가지고 인도네시아의 투표행태와 정당체계를 설명하는 것에 반대하여 리들(Liddle)을 중심으로 한 정치학자들은 정치적인 요인을 오히려 강조한다. 집합 자료를 활용한 킹과는 달리, 개인 설문조사 자료를 가지고, 리들과 무자니(Mujani)는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로서의 인도네시아의 특수성 보다는 투표행태 일반이론에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인 정당일체감(PID, party identification)이라는 변수와 정치적 리더십이라는 두 변수를 가지고 인도네시아의 권위주의 이후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정치적 행태를 설명하고 있다. 기존의 사회학적인 변수인 종교적

변수에 반하여, 리들과 그의 공저자는 사실 정치가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인 토양과는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정치영역의 고유한 변수를 강조하고 있다(Liddle and Mujani 2007). 또 다른 연구자와 공저한 글에서도 이들은 여전히 종교적인 변수의 중요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 이슬람이라는 종교적 변수는 정당들의 경제정책이나 공약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만 영향력을 행사하고 투표자들이 정당들의 경제 정책을 인지할 때는 이슬람이라는 종교적인 변수는 호소력을 상실한다고 주장한다(Pepinsky, Liddle, and Mujani 2012).

킹의 연속성 연구에 대한 또 다른 비판은 최정욱(2012) 연구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당체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시점은 1955년과 1999년과 그것의 비교가 아니라, 오히려 2004년 선거와 그 이전 선거라고 본다. 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다당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민주화 이후에도 다당제가 온존하고 있지만,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2004년 선거에서 적어도 선거구 단위에서는 온건한 다당제가 보다 극단적인 형태로 변화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선거구 단위의 정당분열의 극심화는 정당 분열을 막으려는 각종 제도적인 장치가 강화되고 선거구 단위에서 사회적 이질성이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것이기에 더욱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그러한 제도적 장치에는 비례대표 선거구 크기의 소규모화, 소규모 정당의 난립을 막으려는 각종 규제조치 등이 포함된다(Choi 2012). 그는 이러한 변화의 특징을 기존 거대 정당의 약화와 중간 규모 정당의 등장과 강세라는 것에서 찾았고 정당의 분열 심화 원인을 결선투표에 의한 대통령 직선제의 도입과 기존 정치균열과 엇갈리는 새로운 사회적 이슈들(예, 부패)의 정치적 중요성이 강화된 탓이라고 본다.

이 연구가 정당체계 일반론에 관한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장황하게 정당체계의 문제를 여기서 다룰 필요는 없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여기서 잠시 정당체계에 관해서 간단히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킹의 원래 글을 보면 정당체계의 연속성이 아니라 그냥 정당 지지기반의 연속성이라는 표현으로 나온다. 하지만 그의 논의는 비교정치 일반론에서 말하는 정치 균열구조론과 이런 구조론(structuralism)에 기반한 정당체계론을 이론적인 전제로 한다. 즉, 그의 이론은 넓게 볼 때, 본인이 인식하였든 아니든 립셋(Seymour Martin Lipset)과 로칸(Stein Rokkan)을 필두로 하는 구조론적인 정당체계론에 속한다. 이에 반하여 최정욱(Choi)의 글은 콕스(Gary Cox)와 같은 전형적인 제도론자들(institutionalism)의 진영에서 바라보는 정당체계를 논하고 있다. 이런 시각에서는 정당체계를 논할 때, 정당체계는 정당의 수를 우선 의미하며 주로 이슈 중심으로 분석을 한다. 마지막으로 리들 교수와 공저자들의 경우에는 또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정당체계를 다루고 있다. 그것은 정당체계의 문제를 다룰 때 주로 마이크로한 수준에서 한 개별 정당의 특성과 투표자 개개인의 성향의 변화를 다루는 미시적인(micro-level) 분석론을 대표한다. 이것은 미국정치론에서 가장 일반화된 정당체계 분석론이다. 이런 학파들의 경우 가장 중요한 정당체계 관련 변수는 정당의 정체성(party identification) 문제이다. 이것은 개별 정당의 성향이나 리더십의 변화만으로도 정당 체계의 변화를 논할 수 있다고 본다. 이 세 가지는 정당체계를 분석하는 기본 틀이며 서로 간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지만 또한 정당체계 연구를 풍부하게 하는 상호 보완적인 틀이다. 이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킹 교수의 구조주의에서 바라본 정당체계의 연속성 문제를 개별 설문조사 자료를 가지고 재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정당체계에 관하여 세 가지 중 어떤 시각을 취하든, 인도네시아 정당체계의 연속성에 관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모두다 권위주의 시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 우리는 권위주의 시기를 거치면서 또

민주화되면서 어떤 정당이 없어지고 어떤 정당이 새로이 만들어지고 이들 정당의 전체적인 득표율은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집합적인 결과를 놓고서 결과론적인 이야기를 하기 보다는 그러한 집합적인 결과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동일한 집합적인 결과일지라도 매우 상이한 개개인의 행동 결과에 기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권위주의 정체에서의 행위자들이 민주주의 정체에 어떻게 적응하여 인도네시아 민주화 이후의 정당체계가 만들어졌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제일 바람직한 것은 전국단위로 조사한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행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수 있는 전국단위의 체계적인 설문조사는 아직 구하지 못하였다. 여기서는 차선택으로 인도네시아 5대 도시를 중심으로 1999년 선거가 일어나기 직전에 수집한 설문조사 자료를 가지고 과거 권위주의 정당의 지지자들이 어떻게 새로운 정당체계로 통합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 자료는 만17세 이상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면조사로 실시되었고 대상지역은 주요 5개 대도시인 자카르타, 메단, 반둥, 수라바야 그리고 우중판당이다. 설문조사 대상의 수는 총 1500명이었는데 각 시별로 보면, 자카르타가 제일 많고 인구가 제일 작은 우중판당이 제일 적다. 자카르타 773명, 반둥 183명, 수라바야 236명, 메단 196명 그리고 우중판당 112명이다. 설문조사를 수행한 기관은 인도네시아 최대 일간지인 콤파스이다. 설문조사 기간은 실제로 선거가 있기 약 한 달 전인 4월17일부터 4월30일까지 기간에 이루어졌다.

설문대상자가 도시지역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표본이 인도네시아 유권자 전부를 대상으로 한 것에 비하여 오차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1997년 중반에 전체 인구의 약 37% 정도만 도시인구였고(World Bank 1999) 총 고용자 중에서 농업노동에 종사

자가 41%에 달하였다(Asian Development Bank 2001). 따라서 여기서의 결과를 가지고 인도네시아 유권자 전체의 성향을 대변한다고 보면 문제가 있다.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민주화는 도시화와 산업화 등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대도시 인구조사를 통하여 우리는 인도네시아 정치발전의 경향성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도네시아 유권자 중에서 가장 현대적인 문명의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지역에 사는 그런 유권자들을 조사함으로써 앞으로 인도네시아가 경제발전이 정치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추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도시 중심의 설문조사는 의의가 있다.

도시 지역의 조사는 인도네시아의 권위주의의 영향을 분석하는데도 매우 중요하다. 인도네시아 권위주의 시기는 오늘날의 인도네시아의 경제가 존재하는 토대를 마련한 기간이고 이러한 경제발전과 산업화의 결정체가 바로 대도시의 발달이기 때문이다. 권위주의 시대에 경제력은 급격히 팽창하였다. 같은 기간에 인구가 1971년 약 1억 2천만 명이었던 것이 1998년 2억 명이 넘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미화로 계산한 일인당 GDP가 1971년에 76달러이었던 것이 1997년 1076달러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제적인 수치는 그에 따른 엄청난 생활패턴의 변화를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곳이 바로 도시 부문이다. 따라서 산업화와 권위주의의 정치적 영향이 있었다면 그것은 우선적으로 도시 부문에서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 이제 본격적인 이행기 분석에 앞서서 권위주의 시대 인도네시아의 정당체계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 Ⅲ. 권위주의 시대의 정당체계와 민주주의로의 이행 개괄

1955년도에 20.9%의 득표율로 수카르노의 인도네시아민족정당



(Partai Nasional Indonesia, PNI)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였던 극단적인 이슬람 정당인 마스유미(Masyumi)는 이미 수하르토가 집권하기 오래 전인 1958년도에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한 무장봉기에 개입하여 1960년도에 강제 해산되었다.<sup>2)</sup> 또한 1955년에 16.36%의 득표율로 4위를 하였던 정당인 인도네시아공산당(Partai Komunis Indonesia, PKI)도 수하르토가 쿠데타를 통하여 집권하는 과정에서 유혈 진압과 강제 해산을 당하게 되었다. 나머지 정당들은 1971년의 과도기적인 선거를 지나고 1973년에 수하르토의 집권정부의 구상에 따라서 만들어 놓은 전혀 새로운 정당체계로 편입되었다. 1973년 1월부터 그 때까지 존재 하던 모든 합법 이슬람 정당은 통합 이슬람당인 통합개발당(Partai Persatuan Pembangunan, United Development Party, PPP)의 우산 아래로 편입되었고, 나머지 비이슬람계의 민족주의 정당들과 기독교계열 정당은 인도네시아민주당(Partai Demokrasi Indonesia, PDI)라는 정당 속으로 합병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정당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명목상으로는 직능집단의 연합체이지만 실질적으로 집권정당으로 기능하였던 골카르가 여기에 더하여 3 개의 합법적인 조직이 권위주

표 1. 73년 정당개편 이후 수하르토 권위주의 시대의 선거 결과

	1977	1982	1987	1992	1997	평균
Golkar	62.11 (39.28)	64.34 (44.99)	73.16 (50.23)	58.41 (54.41)	74.51 (65.34)	66.31% (50.85)
PPP	29.29 (43.46)	27.78 (39.20)	15.97 (28.35)	34.51 (23.81)	22.432 (32.87)	6.00 (33.54)
PDI	8.60 (17.26)	7.88 (15.81)	10.87 (21.42)	7.08 (21.78)	3.06 (1.79)	7.50% (15.61)

주: 괄호 속 수치는 수도 자카르타 지역의 해당 연도 정당별 득표율을 나타낸다.  
출처: Biro Humas Komisi Pemilihan Umum(2000)

2)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Choi(2006) 3장 참조.

의 시대 선거에 참여하여 득표 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삼당이 선거별로 획득한 표의 비율은 표1과 같다.

표에서 보듯이 집권정당에 해당하는 골카르가 권위주의 시기 삼당 선거에서 압도적인 다수표(super majority)를 얻고 있었다. 이슬람 정당이 그 다음으로 약 1/3정도의 표를 가져갔고, 기독교 정당과 과거 민족주의 정당의 잔재로 남아있던 인도네시아민주당의 경우 10%이하의 표를 대체로 얻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집권 정당인 골카르의 표는 킹이 시사한 바와 달리 근대 이슬람 세력이 아니라 대부분 과거 민족주의 계열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가 있다. 이것은 골카르가 이슬람과 민족주의 계열의 통합에 기반한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이것은 권위주의 아래서도 이슬람 정당이 지속적인 득표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권위주의 정권 아래서 이루어지는 선거가 완전히 자유로운 선거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 마스유미 정당의 해체에도 불구하고 권위주의 시대 이슬람 정당의 득표율이 1955년의 약40% 정도에 비하여 그렇게 심하게 떨어지지 않은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또한 대표적인 도시인 수도 지역에서의 투표는 다른 지역과 달리 골카르의 득표율이 과반을 겨우 차지하고 심지어 초기 선거 때에는 통합개발당에 비하여 득표율이 4%정도 뒤처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슬람 정당의 수도 지역에서의 선전은 다른 도시 지역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sup>3)</sup>

이러한 불균형의 삼당체제가 1997-8년 외환위기 속에서 결국은 와해되고 본격적인 다당제로 다시 귀환하게 된다. 1999년 선거의 주요한 정당의 득표율은 이슬람 진영의 경우 통합개발당이 11%, 국

3)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 권위주의 시대의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관찰할 수 있었던 여촌야도 현상을 상기시키는 현상이다.

민각성당(Partai Kebangkitan Bangsa, PKB)이 13%, 국민수권당(Partai Amanat Nasional, PAN)이 7%, 월성당(Partai Bulan Bintang, PBB)이 2%, 정의당(Partai Keadilan, PK)이 1%를 얻어서, 득표율 합은 34%이었다. 비이슬람 진영의 경우 수카르노의 딸인 메가와띠의 이탈로 이미 1997년 선거에서 유명무실하여졌던 인도네시아민주당을 개혁한 정당인 인도네시아민주투쟁당(Partai Demokrasi Indonesia Perjuangan, PDIP)이 약 34%의 표를 얻고 기존 지배정당인 골카르가 22%를 가져갔다. 나머지 표는 기타 극소수 정당에 분산되었다.

이러한 변화에서 알 수 있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이슬람 정당 표가 민주화 이후 조금 늘어났지만, 권위주의 시기에 비해 두드러진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가장 큰 차이는 권위주의 시대에는 강제로 통합개발당에 몰려 있었던 이슬람 계열의 표가, 민주화 되면서 여러 개의 정당으로 분열되어 흩어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권위주의 시대 창조물인 통합개발당이 전체 이슬람진영 표의 1/3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두 번째 두드러진 특징은 민족주의 정당의 통합으로 존재하던 인도네시아민주당의 개혁 정당인 민주투쟁당이 제1정당으로의 등장한 것과 인도네시아 권위주의 시대의 상징이자 통합정당인 골카르가 제1정당의 지위를 상실한 것이다. 골카르의 경우 정부 지원이라는 후광을 상실함으로써 득표율이 정확하게 1/3로 줄었다. 반면에 민주투쟁당의 경우 그 비율이 약 5배 조금 안 되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권위주의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골카르가 여전히 제2정당으로 온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취합한 집합적 결과를 두고 볼 때, 우리는 첫째, 과거 통합개발당의 지지자들과 잠재적 지지자들은 대부분 새로운 이슬람 정당에 투표하거나 아니면 통합개발당에 그대로 남았다 고 가정할 수 있다. 만약에 이러한 가정이 맞는다면, 이슬람 정체성

의 정치적인 지속성을 반증하는 것이기에 이슬람과 비이슬람의 균열을 가장 중시하는 킹의 주장에 힘을 실어 주는 것이 된다.

둘째로, 민족주의 혹은 통합정당에 속하는 신생정당인 민주투쟁당의 경우 대부분의 표가 권위주의 시대에 통합정당 기능을 표방하였던 골카르의 표에서 왔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 역시 민족주의나 반이슬람 진영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킹의 주장을 강화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로 만약에 골카르나 통합개발당의 지지자들의 대다수나 적어도 가장 많은 지지자들이 그대로 민주화 이후에도 지지자로 남아 있다면, 우리는 권위주의의 영향을 과소평가하는 킹의 주장과 달리 권위주의 시대의 잔재가 강하게 남아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하여 수하르토의 신질서가 실시한 정당개혁이 완전히 실패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과거 민족주의 세력 내에서의 계급을 중심으로 한 분열이 존재하였는데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되었던 공산당인 인도네시아 공산당은 무력으로 절멸된 다음에 지하화되었다. 이러한 계급 변수가 권위주의 이후 어떻게 새롭게 부상하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킹 교수의 경우 민족주의 세력 내에서 계급의 문제는 대부분의 하층 계급들이 민주투쟁당에 투표함으로써 해소된 것으로 본다. 이 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여기서는 표본 중 저소득층의 투표성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IV. 민주화 이행기 정당체계 형성에서의 이슬람, 권위주의 잔재, 그리고 저소득층 문제

민주화 이행기 정당체계 형성에서의 이슬람, 권위주의 잔재, 그리

고 저소득층 문제를 살펴보기 위하여 이제 1997년에 기존의 3개 정당에 투표하였던 유권자들이 1999년 투표에서 어떤 정당에 어떻게 투표하는지를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여기서 우리의 첫 번째 관심은 이슬람 진영의 표가 민주화 과정에서 어떻게 분산되었는지를 추적하는 것이다. 아래 표는 기존 이슬람 진영의 표가 민주화 과정에서 얼마만큼 이슬람 진영으로 그대로 전이되었고 얼마만큼 비이슬람 진영으로 이탈하였는지를 보여 준다. 또한 이 표는 이슬람 진영에 그대로 전이된 이슬람 표 중 얼마만큼이 기존 이슬람 정당에 남고 얼마만큼이 신생 이슬람 정당에게로 이전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이 표는 결과적으로 이슬람표의 역사적 연속성을 검토하는데 도움이 된다. 논의의 편의상 우리는 극미한 정당은 처음부터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나름대로 의미 있는 정당들 중 통합개발당, 국민각성당, 국민수권당, 월성당, 정의당 등은 이 표에서 이슬람정당으로 분류하였는데 이 중 통합개발당만이 기존정당이다. 또한 비이슬람 진영에는 인도네시아민주당, 골카르, 그리고 민주투쟁당이 포함되었다. 기존정당에는 인도네시아민주당과 골카르가 포함되었고 신생 정당에는 민주투쟁당이 들어간다.

이러한 분류표에서 기존 정당과 신생정당의 구분은 논란의 여지가 거의 없을 것이다. 민주투쟁당의 경우 기존 민주당의 변신이지만 신생 정당으로 분류하였다. 이에 반하여 가장 논쟁거리인 이슬람 정당과 비이슬람 정당의 구분은 상대적으로 기준이 불분명하다. 여기서는 킹교수의 주장을 다른 자료를 가지고 재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의 분류를 따르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언급은 필요하다고 본다. 전통적으로 이슬람 정당의 경우 이슬람 국가 건설 혹은 이슬람 율법을 국가법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거나 이슬람의 교리를 정당의 지도이념으로 택한 정당을 지칭한다. 이렇게 엄격하게 정의할 때, 이슬람 정당은 인도네시아의

제도권 정치 내에 많지 않다. 과거 통합개발당의 경우도 지도이념은 판짜실라를 수용하였고, 민주화 과정에서 이것을 버리고 이슬람주의를 교리로 채택하였다. 표에서 나머지 이슬람 정당으로 분류된 신생 정당들 중 월성당이나 정의당의 경우 이슬람주의 정당을 공식적으로 표방하고 있지만, 국민각성당이나 국민수권당의 경우는 공식적으로 이슬람주의를 당의 최고 원리로 삼는 정당이 아니다. 국민각성당의 경우 세속국가를 표방하고 있고, 국민수권당의 경우 다원주의(pluralism)와 비종파주의(non-sectarianism)을 천명하고 있다. 특히 국민수권당의 경우 비무슬림 표를 얻기 위하여 표면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이 두 정당의 핵심 지지기반이 전통 이슬람주의와 근대 이슬람주의를 각각 대표하는 최대 무슬림 조직인 나흐다툴 울라마(Nahdlatul Ulama, NU)와 무함마디아(Muhammadiyah)라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런 면에서 이 두 개의 정당도 여기서는 논의의 필요상 이슬람 정당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골카르의 경우 이행기 대통령인 하비비를 포함하여 일부 지도부는 지식인을 중심으로 한 무슬림 조직인 “인도네시아 무슬림 지식인 연대”(Indonesian Muslim Intellectuals, ICMI)와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카르의 지도 이념 자체는 이슬람과 거리가 멀고 지지층이 무슬림 대중조직에 기반하고 있지도 않다. 이런 면에서 골카르는 그 지도이념에서 보듯이 일종의 통합세속정당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1. 이슬람 영향력의 지속성 문제

표 2의 관찰값은 1997년에 투표한 유권자 중에서 단순히 어떤 정당에 1999년에 투표할 것인가를 묻은 결과만 조사하면 총 175명이지만, 이 질문에 답하지 않고 비밀로 부친 유권자의 투표 성향을 선호

도를 가지고 복원한 것까지 포함하면 유효 관찰값은 총 236명으로 늘어난다.<sup>4)</sup> 우리는 선호도를 투표로 복원한 경우까지 합친 관찰 사례는 괄호 속에 별도로 표기하고 투표정당을 비밀로 하였던 유권자의 경우를 결측값으로 처리한 경우는 괄호 바깥에 표기하였다.<sup>5)</sup>

자료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을 위하여 본문 뒤에 설문조사 문항지를 부록으로 첨부한다. 분석변수로 활용한 자료는 문항지에서 11(소득)번, 47(97년 투표정당)번, 50(99년 선호정당)번, 51(99년 투표정당)번 문항이다.

이 표에서 보듯이, 이슬람 진영의 표는 민주화 과정에서 투표한 정당을 비밀이라고 말한 유권자의 투표를 선호도 그대로 복원하였을 때는 약 80%가 이슬람 진영으로 전이되었고 투표정당을 밝히기를 꺼린 유권자의 경우를 결측값으로 처리하면 약 83%가 그대로 이슬람 진영에 남았다. 과거 이슬람 진영에 속하였던 지지자의 골카르로의 이전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것은 5명 중 한 명 내지 그 이하만 당시 세몰이를 하였던 신생 민주투쟁당 쪽으로 이탈하였다는 의미가 된다.

4) 투표정당을 비밀로 부친 유권자 중에서 별도의 질문에서 정당에 대한 선호도를 구체적으로 밝힌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이들이 선거에서 실질적으로 자신이 선호하는 정당에 그대로 투표한다고 가정하여 값을 복원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은 투표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일반적인 투표이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처럼 비례대표제를 채택할 시에는 자신이 선호하는 정당에게 바로 투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이런 경우 소선거구제에서와 달리 사표방지 심리가 작동하거나 전략적 투표를 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5) 도시 부문만 국한하여 조사하였지만, 설문조사의 정확도는 실제 전국 선거결과와 대비하여 보았을 때, 큰 오차가 발생하지 않았기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 또한 총대상자는 1500명이지만, 1997년과 1999년 선거에서 어느 하나라도 무응답한 사람들이 존재하면 결측값으로 제거하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관찰값은 불가피하게 줄어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효 관찰값이 통계학상으로 심각한 방법론적인 문제를 야기할 정도로 줄어들지는 않았다. 또한 다변량 분석을 하려면 보다 많은 변수들을 통제하여야 하기 때문에 더욱 더 많은 경우의 수가 결측값으로 분석에서 제거된다. 결과적으로 다변량 회귀분석은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많다. 하지만 후속연구에서는 전국 단위의 설문조사 자료를 가지고 다변량 분석을 시도해 볼만 하다.

표 2. 권위주의 시대 이슬람진영 지지표의 민주화 과정에서의 변이(단위:%)

	이슬람정당	비이슬람정당	합
기존정당	53.7(50.4)	1.1(1.7)	54.9(52.1)
신생정당	29.7(30.1)	15.4(17.8)	45.1(47.9)
합	83.4(80.5)	16.6(19.5)	100(100)

주: 기존 이슬람 정당에는 통합개발당이, 기존 비이슬람 정당에는 골카르와 민주당이, 신생 이슬람 정당에는 국민각성당, 국민수권당, 월성당, 정의당이, 신생 비이슬람 정당에는 민주투쟁당이 각각 포함된다. 유효 관찰값은 투표한 정당을 비밀로 한 사례를 제외하면 175명이고 비밀에 부친 정당을 선호도를 표현한 것을 가지고 복원한 경우를 포함하면 236명이다. 상기 비율 표시 중에서 괄호 속은 비밀을 선호대로 복원한 경우의 수를 포함한 것이다.

또한 놀라운 사실은 5대 도시에서 기존 이슬람 정당인 통합개발당의 지지자 중 신생 이슬람 정당 쪽으로의 이탈률이 낮다는 것이다. 약 80%대의 완고한 이슬람 정당 지지자 중 64%(63%) 정도가 통합개발당에 그대로 남고 나머지 36%(37%) 정도가 신생 이슬람 정당 4개에 나뉘어졌다. 기존 이슬람 정당인 통합개발당의 이러한 도시 지역에서의 선전 덕분에, 통합개발당은 국민각성당이 강세를 보인 인구 밀집지역인 동부 자바를 제외하면 1999년 선거에서 사실상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최대 이슬람 정당으로 살아남은 것으로 보인다(Choi 2006: 51).

이렇게 기존의 이슬람 정당 표가 대부분 새로운 이슬람 정당이나 기존의 이슬람 정당에게로 넘어간 것처럼, 기존의 비이슬람 표 중 대다수가 기존의 비이슬람 정당이나 새롭게 등장한 비이슬람 정당에게로 이전되었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1997년에 이슬람정당을 꺼려서 비이슬람 정당에 투표하였던 유권자 진영의 표 중 약 77%(71%)가 1999년에 비이슬람 정당에게로 그대로 전이되었다.



표 3. 권위주의 시대 비이슬람 진영 지지표의 민주화 과정에서의 변이(단위:%)

	이슬람정당	비이슬람정당	합
기존정당	8.8(9.5)	31.2(32.1)	40.0(41.6)
신생정당	14.2(19.8)	45.8(38.6)	60.0(58.4)
합	23.1(29.3)	76.9(70.7)	100(100)

주. 유효 관찰값은 투표한 정당을 비밀로 한 경우를 제외하면 260이고 비밀을 선택도를 가지고 복원 하였을 때에는 430이다.

표2와 표3의 결과는 모두 다 이슬람이 유의미한 정치적 균열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여 주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슬람은 특정 유권자 집단에게 매우 강한 유인 요인으로서 또는 다른 유권자 집단에게는 그보다는 약하지만 여전히 강한 억제 요인으로서 인도네시아 선거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존에 이슬람 정당을 어떤 이유로든 지지하던 유권자의 경우 민주화 과정과 관계없이 여전히 이슬람 진영의 정당을 지지하고 기존에 이슬람 정당을 기피하였던 유권자의 대다수는 민주화 과정에서도 여전히 이슬람진영의 정당들을 기피하는 경향이 농후하다는 것이다.<sup>6)</sup>

6) 앞의 두 개의 표는 이러한 이슬람 정당지지의 역사적 연속성을 확인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정당의 이슬람화의 역사적 강화도 시사하고 있다. 적어도 이것은 이 논문의 주 연구대상인 도시 부문에서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슬람화의 강화가 매우 뚜렷하지는 않고 이슬람 정당의 난립으로 불식되는 측면이 있지만, 이슬람 정당 지지자의 민주화 과정에서 비이슬람 진영으로의 이동보다는 비이슬람 진영 유권자의 이슬람 진영으로의 이동이 더 많은 것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극단적인 이슬람 정당이었던 마스유미의 해체로 인하여 1955년보다는 이슬람 정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것의 승계 정당이라고 자부하는 월성당의 지지율이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권위주의 시대의 외투를 인도네시아가 벗었을 때, 이슬람화가 그 이전보다는 강화된 면이 보인다. 또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지만 도시화가 이러한 경향을 촉진한 것으로 보인다.

## 2. 권위주의 시대 정당의 영향력 잔존 문제

민약에 권위주의의 영향이 이슬람의 영향처럼 매우 유의미하다면, 과거 권위주의 정당의 지지표가 상당 부분 민주화 과정에서도 그대로 이전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의 권위주의 영향은 이슬람만큼 강하지는 않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권위주의 시대의 기존 정당에 대한 도시 부문 지지도는 1999년 선거에서 미미한 지지표를 얻은 인도네시아민주당을 합하여 46%(45%)정도이다. 이것은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비율이지만, 이슬람 표의 연속성의 강도와 비교할 때는 상대적으로 전이의 강도가 약하다.

표4. 권위주의 시대 기존 전체 3개 정당 지지표의 민주화 과정에서의 변이(단위: %)

	이슬람정당	비이슬람정당	합
기존정당	26.9(24.0)	19.1(21.3)	46.0(45.3)
신생정당	20.5(23.4)	33.6(31.2)	54.0(54.7)
	47.4(47.4)	52.6(52.6)	100(100)

주. 관찰값의 수는 투표한 정당을 비밀로 한 경우를 결측값으로 처리한 경우 435명이고 이것을 별도로 선호도를 가지고 그대로 복원한 것까지 합친 경우에는 666명이다. 후자의 백분율은 괄호 속에 표기하였다.

여기서 혼동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이슬람의 연속성과 권위주의 영향력의 연속성을 비교해서 앞의 것이 강하다는 결론이 결코 이슬람의 정치적 영향력이 비이슬람적인 요소보다 절대적인 수준에서 강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민주화 이전이나 그 과정에서 이슬람 정당의 득표율은 도시 부문에서조차 비이슬람 정당의 득표율보다 5%정도 낮다. 다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일단 이슬람의 영향이 투표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유권자의 경우 비록 민주화가 되었더라도 그러한 영향력을 벗어나서 세속적인 정당에 투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과거 권위주의의 아

래서 각종 정부의 영향력 때문에 기존 3당에 투표하였던 유권자들의 대다수가 그러한 투표행태를 지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한다. 특히 골카르 정당을 볼 때, 42%(39%)정도의 유권자만 지속적으로 골카르를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권위주의의 영향력이 역사적 연속성에서 이슬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영향력은 킹의 연구가 시사한 바와 달리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46%(45%)의 역사적 연속성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일 뿐만 아니라, 같은 이슬람 진영 내에서는 기존 권위주의 시대 정당에 대한 지지는 대표적인 5대 도시 지역의 경우 1999년 선거에서 54%(50%)로 여전히 높은 편이다. 신생 이슬람 정당 전부를 합친 것의 1999년 지지율이 약 30% 정도인 것과 대조적이다(표2 참조). 비이슬람진영 내에서도 기존 비이슬람 정당에 대한 지지도는 31%(32%)로 신생정당이 46%(39%) 정도 받은 것에 비하여 낮은 편이지만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수치이다(표 3참조). 이것은 민주화 이후에도 기존 정당 중 이슬람을 대표하는 통합개발당과 비이슬람 통합정당을 지향하는 골카르의 경우 여전히 주요한 정당으로 대중의 심리 속에 잔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권위주의 시대의 부산물인 기존 정당의 민주화 과정에서 지속적인 영향력은 두 가지를 말하여 주는 것이다. 하나는 인도네시아 권위주의 시대가 완전히 사상누각은 아니라는 것이다. 신질서 시대가 군부의 집권과 만연한 부패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오늘날의 경제성장의 토대를 닦은 기간인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권위주의 시대 정당의 지속적인 영향력은 기존 정당이 갖춘 강력한 선거 조직 네트워크와 후원 관계의 잔존만이 아니라 권위주의 시대가 만들어 낸 물적인 토대 위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물적인 토대가 없었다면, 권위주의 체제 자체의 붕괴는 곧바로 그 체제를 운영하던 기존 정당체계의 몰락을 가져왔을 것이다.

또한, 기존 권위주의 시대 정당의 지속적인 영향력이 가능하였던 것은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 체제로 이행이 외적인 충격에 우선적으로 기인한 것을 반증하고 있다. 1997년 태국에서 비롯된 외환위기의 소용돌이 속에 인도네시아가 휘말리면서 수하르토의 집권력이 급속도로 약화된 탓에 민주화가 촉발된 것이지 내재적으로 그동안 존재하였던 어떤 민주화 운동 자체로 인하여 촉발된 민주화가 아니었다. 이런 점 때문에 과거 권위주의 정당인 골카르와 통합개발당은 민주화 이행기 선거에서 건실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다. 수하르토 체제에 대한 반권위주의 운동을 하였던 세력의 연합체가 없었던 인도네시아 정치에서 외부적인 충격으로 인하여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잠재적인 대안 정치세력들 간에 민주화 과정에서 공조체제가 미처 마련되지 못하였고 이러한 결과 다양한 정당들이 일시에 설립된 것이다. 이러한 분열은 세속 정당 진영보다도 이슬람 진영에서 보다 더 극심하였다. 신생 이슬람 정당의 난립으로 기존 이슬람 진영은 단일화된 민주화 노선을 제시하는데 실패하였다. 이러한 이슬람의 내부 분열은 민주화 이후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sup>7)</sup>

### 3. 소득(계급)의 영향력 문제

이슬람의 정치적인 영향력의 지속성과 권위주의 시대의 정당의 잔존이라는 문제와 더불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는 민족주의 진영 내에서의 계급 문제의 소멸 여부이다. 킹에 따르면 과거 1955년과 달리 민주화 과정에서는 인도네시아 공산당의 절멸로 인하여 민족주의 진영 내에서 노동자와 빈민 등 하층 계급을 대변할 정당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당에 대한 잠재적 지지층은 인도네시아

7) 인도네시아 현대정치의 특징을 분열강화로 보거나 정당의 제도화 부족을 지적하는 연구들을 보려면 Aspinall(2013)와 Tan(2012) 참조.

민주투쟁당으로 접목되었다고 한다(King 2003: 133-4). 실제로 민주화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메가와띠의 민주투쟁당이 사회의 하층민(underclasses)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시각에서는 과거 민족진영에 속하였던 하층 계층의 이슬람 진영으로의 전이 가능성나 하층 계급과 이슬람의 연관성 문제는 처음부터 논외사항이다. 또한 킹은 비이슬람 통합 정당으로 분류한 골카르가 계급적인 요소와는 무관하게 종교적인 요인에 지지기반을 두고 있다고 한다. 킹은 골카르가 근대주의 이슬람의 지지를 받고 또한 과거 기독교도 정당에 투표하였던 지역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한다(King 2003: 133-4). 그리하여 그에 따르면, 과거 계급에 따라서 양분되었던 비이슬람 진영 내의 인도네시아공산당(PKI)과 인도네시아 민족정당(PNI)의 균열과 달리 민주화 과정에서의 비이슬람 진영에서 골카르와 민주투쟁당의 분열은 계급의 양극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설문조사에서는 직접적으로 계급 변수를 측정할 수 있는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은 것이 매우 어렵다. 하지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변수로서 소득 수준이 존재한다. 소득 수준을 가지고 하위 계층의 정치적 성향을 파악할 수 있다. 우선 소득 수준을 보면, 설문조사에서는 정확하게 소득 수준을 범주화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소득을 4분위로 나뉘어 그룹화하는 경향을 반영하여 여기서는 가능한 하위 25%에 가까운 집단을 하나로 묶고, 그 다음 25%집단에 가까운 집단을 또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서 분리하는 식으로 하여 4개의 소득 수준별 집단을 구분하였다. 이런 경우, 설문조사에서의 소득에 대한 파악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소득 집단을 월 소득이 30만루피아 이하, 50만 루피아 이하, 80만 루피아 이하, 그리고 80만 루피아 초과 집단 이렇게 4개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구분은 실제로 인도네시아의 소득 계층을 나

누는 기준과 차이가 날 수 있다. 여기서는 전체 설문조사 대상자들이 밝힌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가능한 25%씩 4개로 균등 분할한 집단을 만들고자 하다 보니 최상위층 기준이 80만 루피아로 책정된 것이다. 어디까지나 설문조사 대상자 집단 내에서의 상대적인 기준이고 일반적인 최상위층 개념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하여 구분한 소득 수준 별로 주요한 정당에 어떻게 표가 나뉘어졌는지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5. 소득 수준과 투표 정당(단위: 명)

	PDI P	Golkar	PPP	PAN	PKB	PBB	PK	합
30만루피아 이하	36(57)	19(35)	37(56)	3(12)	5(14)	4(6)	1(3)	105(183)
50만루피아 이하	43(67)	20(32)	35(51)	13(29)	6(9)	5(10)	5(5)	127(203)
80만루피아 이하	36(43)	15(30)	17(27)	7(18)	1(6)	3(6)	2(2)	81(132)
80만루피아 초과	37(61)	13(24)	10(15)	21(37)	5(8)	0(3)	2(2)	88(150)
합계	152(228)	67(121)	99(149)	44(96)	17(37)	12(25)	10(12)	401(668)

주: 괄호 안의 수치는 투표한 정당을 비밀에 부친 유권자의 경우, 정당 선호도를 투표 정당으로 추정하여 복원한 값을 포함한 경우를 나타낸다.

공산당이 잔존하였다면 잠재적인 지지층으로 분류할 수 있는 소득집단은 최하위층이다. 이들 도시 빈민의 경우를 보면, 킹의 연구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민주투쟁당이 하위 소득층의 최선호 정당 중 하나인 것은 확실하다. 투표 정당을 비밀로 한 유권자의 투표 정당을 선호도를 가지고 추정하여 자료를 보완할 때는 최하위층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민주투쟁당을 지지하였고 투표 정당을 비밀로 한 유권자를 결측값으로 제외할 때는 통합개발당과 약 1%차이로 최하위층의 차선의 선택이었다. 하지만 다른 상위 소득 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인도네시아민주투쟁당의 지지도가 최하위층에서 유난히 높다고 볼 수가 없다. 최하위층의 경우 약 34%(31%)가 민주투쟁당을 지지하였고 차상위 계층도 마찬가지로 약 34%(33%)가 지지

를 하였다. 중상위층과 최상위층의 경우 44%(33%)와 42%(41%)가 이 정당을 지지하였다. 그리하여 그 소득 집단 별로 굳이 차이가 있다면 오히려 상층 소득 집단이 하층 집단보다 더 많이 민주투쟁당을 지지한다는 사실이다. 특히 최상층 소득 집단의 인도네시아민주투쟁당에 대한 선호는 각별하다. 최상층 소득 집단의 경우 교육받은 도시 중산층을 주요한 지지기반으로 한다고 알려진 국민수권당이 최상층에서 24.5%대의 표를 얻어서 겨우 2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고 나머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는 이 층에서 민주투쟁당과 비교할 때 너무 미미한 수준이다. 이것은 같은 비이슬람 통합 정당에 해당하는 골카르의 경우와 비교하여서도 대조된다. 골카르의 경우 소득 집단 별로 보면, 아래서부터 위로 각각 18%(19%), 16%(16%), 19%(23%), 15%(16%)로 비교적 골고루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득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인도네시아 민주투쟁당이 빈민의 정당이라는 일반적 인식에 오류가 있음을 의미한다.

소득 수준에 따른 투표 성향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이른바 이슬람 정당인 통합개발당에 대한 지지율인데, 이 정당의 경우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지지도가 강하다는 것이다. 최하층의 경우 35%(31%), 차상위층 28%(25%), 중상위층 21%(21%), 최상위층 11%(10%)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이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같은 이슬람 진영 중에서 도시 부문에서 많은 표를 얻은 국민수권당의 경우와도 대비된다. 전반적으로 근대주의 이슬람에 기반한 국민수권당의 경우 소득 수준이 높은 경우 지지율이 높은 편이다. 이것은 위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근대주의 이슬람이 도시부문, 특히 그 중에서도 교육 받은 층에 지지율이 높다는 통상적인 인식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도시 빈민의 경우 여전히 많은 유권자가 민주투쟁당을 지지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킹이나 언론 보도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민주투쟁당이 도시 빈민의 정당

이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전체 민주투쟁당 지지자 중에서 최하층 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24(25%)에 불과하고 최하층 소득 집단 유권자 전체에서 통합개발당이 민주투쟁당과 비슷한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통합개발당의 전체 지지자 중에서 최하층 소득 집단이 차지하는 비율도 37%(38%)로 전체 인도네시아 유력 정당들 중에서 최고치에 이른다. 그리하여 통합개발당이 야말로 오히려 도시 빈민층의 정당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소득에 따른 투표 성향에서 도시 빈민층의 경우 기존 이슬람 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다는 사실은 과거 공산당에 대한 잠재적 지지층인 하위 소득 계층이 민주투쟁당에게로 편입되었고 결과적으로 민족주의 진영에 그대로 잔존하게 되어 계급문제가 소멸하였다고 시사하는 킹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킹의 관찰이 시사한 것과 달리 도시 빈민들한테서 세속 정당이 아닌 이슬람 정당에 지지도가 높게 나온 것은 그 자체로서 매우 중요한 새 연구주제이다.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 이슬람이 종교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이슬람 정당의 문제를 이슬람 교리에 기반한 갈등의 문제로 해석할 때는 이러한 빈곤과 이슬람 정당의 연관성을 이해하기 어렵다. 비록 우리는 통합개발당이 기성 정당의 이점, 즉 준비된 선거 조직과 네트워크(Sukmajati 2010)를 활용하여 지지를 이끌어 내었다는 것 이외에는 왜 도시 빈민들이 여러 이슬람 정당 중에서 하필 통합개발당을 더 지지하였는지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빈곤이 이슬람의 정치화와 관련이 있다는 기존의 연구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연구들도 소득과 특정 이슬람 정당의 연관 고리를 본격적으로 다루려는 논문이라기보다는 보다 넓은 의미의 이슬람의 정치화 현상을 설명하려는 노력의 일환일 뿐이다. 따라서 앞으로 소득과 이슬람 정당의 문제는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



하다.

민주화 당시 유류값 인상으로 인한 도시 빈민들의 삶의 급격한 악화가 반정부 폭동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된 것을 상기하면, 이슬람 정당 중에서 반정부 기조를 분명히 하였던 통합개발당과 도시 빈민의 연결 고리를 추정할 수 있지만, 기존의 어떤 연구들도 직접적으로 특정 정당과 빈곤 문제의 연관성을 다루지는 않는다. 하지만 위의 설문조사 결과는 빈곤의 문제가 이슬람 정치의 강화나 약화라는 문제와 상관이 있다는 기존의 소수 연구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는 정치적 이슬람은 냉전으로 인하여 전통적인 빈민 정당인 공산당이나 좌파 정당이 정치적 억압으로 제대로 성장할 수 없었던 토양 속에서 자본주의 모순과 빈곤의 악화라는 문제를 다루기 위한 일종의 대안 운동으로서 등장한 포퓰리즘적 운동이라고 해석한다(Hadiz 2011). 또 다른 해석으로는 이슬람 정당의 문제는 이슬람 진영에서 벌이는 대중복지사업과 연관이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이슬람 진영에서 벌이는 교육이나 보건 사업이 정부차원의 대중복지사업과 연계되거나 독자적으로 진행되는 시혜적인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슬람이 사회 기저층에서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었고 이슬람과 별개로 국가에 의한 대중복지사업이 강화되면 이슬람의 정치화는 약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Hicks 2011). 이 두 가지 시각 모두 통합개발당의 문제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다 넓은 의미의 정치적 이슬람을 종교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논리로 풀고 있기에 앞으로의 연구에서 참조할 만하다고 하겠다.<sup>8)</sup>

8) 이슬람 정당이 실제로 빈곤 혹은 계급 문제와 관련한 입장과 그것의 선거에 대한 영향력, 이슬람 단체의 대중 복지사업과 정당활동이나 투표활동의 연관성에 대한 구체적인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것은 앞으로 연구에서 밝혀내어야 할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 V. 결론

이 연구에서는 권위주의 시기가 어떻게 권위주의 이전 시기와 그 이후 정당체계의 연속성과 관련하여 연관이 있는지를 인도네시아 5대 도시 개별 대면 설문조사 자료를 가지고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기존의 연속성 논의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연속성 논의는 주로 집합 자료에 의존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또한 기존의 연구는 꽤 오랜 역사적 기간이자 실질적으로 인도네시아 대중의 삶을 혁신적으로 바꾸어 놓은 산업화 시기에 해당하는 수하르트의 권위주의 시기가 정당체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함구하거나 대체로 의문점으로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개별 설문조사를 통하여 어떻게 권위주의 시대 개인 투표자들이 민주화 과정에서 적응하여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우리는 우선 킹이 집합 자료를 가지고 지적하였듯이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주의는 민주주의 이행과 무관하게 정당체계의 변화 혹은 정치 행태를 설명하는 유용한 변수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슬람주의와 세속주의 혹은 민족주의 대결에서 이슬람주의 쪽에 기울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권위주의 시대나 그 이후에나 이슬람주의에 친밀한 정당들에 이끌려 투표하는 경향이 있다(유인 요인). 반면에 이러한 이슬람주의를 기피하는 유권자들의 경우 민주화 시기든 권위주의 시기든 이슬람주의 색채를 드러내는 정당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억제요인).

비록 이러한 이슬람주의 영향만큼 강하지는 않지만 또한 권위주의의 잔재나 그 영향은 정당체계에서 발견된다. 이슬람주의가 1955년 정당체계의 민주화 이후 영향을 입증하는 것인 반면에 권위주의 정당체계가 새로운 시대에 상대적으로 성공적으로 적응한 점은 1955년 체제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특징이다. 이것은 1999년 이후

정당체계가 1955년 정당체계의 다당제와는 형식적으로 유사하지만, 내적으로는 상당히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내용적인 차별성은 표면적으로 두 개의 굳건한 권위주의 시대 정당이 잔존하고 있다는 점과 극단적인 반체제 정당으로서 극우적인 이슬람 정당과 극좌적인 공산당이 핵심정당으로 재등장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전자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창설된 정당들이 여전히 민주화 과정에서 대중들의 마음을 상당부분 사로잡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권위주의 시대에 선거를 치른 경험이 있는 정당으로서 갖는 각종 기득권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권위주의 시대에 대한 대중들의 평가가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개별 설문조사를 가지고 살펴본 결과 중에 가장 놀라운 발견은 소득 수준과 이슬람주의와 민족주의 정당과의 관계이다. 일반적으로는 도시 빈민의 경우 인도네시아민주투쟁당의 지지기반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우리 자료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 하지 않는다. 비록 도시 빈민층 중 많은 수가 인도네시아 민주투쟁당을 지지하고 있지만 그 정당을 지지하는 층 중에서 도시 빈민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다른 소득 계층에 비하여 소수이다. 오히려 이슬람주의 정당인 통합개발당이 도시 부유층보다도 도시 빈민층에서 보다 광범위하게 지지를 받고 있다. 이것은 이슬람의 정치화가 단순히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상황과 연관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발견은 이슬람의 정치화 문제를 단순히 이슬람 종교 자체 내부에 박힌 교리의 문제로 보거나 정당 정체성이나 리더십 문제로 환원하려는 일련의 정치적 설명에 대한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문제의식의 시작일 뿐이지 보다 많은 자료와 엄격한 연구 방법을 통하여 증명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이 연구는 또 다른 면에서 추가로 보완하여야 하는 점이 많다. 그

중에서 가장 방법론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도시 부문만이 아니라 농촌 부문까지 합친 인도네시아 투표자의 개별 투표 성향에 근거한 권위주의 시대와 그 이후 정당체계의 연속성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전국적인 자료에 기반하여서만 우리는 인도네시아 전체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기반한 정당체계의 연속성을 논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새로운 자료를 통하여 추가 연구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인도네시아 전체적으로는 잠정적인 결론일 뿐이고, 도시 부문에서만 유효한 결론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주제어:** 인도네시아, 정당체계, 정치 균열, 연속성, 이슬람, 민족주의, 권위주의, 소득, 계급

### 〈참고문헌〉

- 강영순. 2007. “현재 인도네시아 선거정치에서의 이슬람 조직의 경쟁과 협력: 나흐다똘, 울라마와 무함마디아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연구』 17(1), 69-113.
- 김형준. 2012. “인도네시아 이슬람 조직의 구조와 특성: 엔우와 무함마디아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연구』 22(2), 95-131.
- 윤진표·제대식. 2000. “인도네시아의 민주화 연구: 군부와 이슬람 세력 간의 동화.” 『국정치논총』 40(3), 317-336.
- 최정욱. 2005. “선거제도, 사회구조와 정당체계: 인도네시아 1955년과 1999년 총선거.” 『동남아시아연구』 15(1), 105-130.
- Asian Development Bank. 2001. *Key Indicators of Developing Asian and Pacific Countries 2001*.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Aspinall, Edward. "A Nation in Fragments: Patronage and Neoliberalism in Contemporary Indonesia." *Critical Asian Studies* 45(1), 27-54.
- Biro Humas Komisi Pemilihan Umum. 2000. *Pemilu Indonesia dalam Angka and Fakta Tahun 1955-1999*. Jakarta: Komisi Pemilihan Umum.
- Choi, Jungug. 2006. *Governments and Markets in East Asia: The Politics of Economic Crises*. London: Routledge.
- . 2010. "District Magnitude, Social Diversity and Indonesia's Parliamentary Party System from 1999 to 2009." *Asian Survey* 50(4), 663-683.
- . 2012. *Votes, Party Systems and Democracy in Asia*. London: Routledge.
- Hadiz, Vedi R. 2011. "Indonesian Political Islam: Capitalist Development and the Legacies of the Cold War." *Journal of Current Southeast Asian Affairs* 1, 3-38.
- Hicks, Jacqueline. 2011. "The Missing Link: Explaining the Political Mobilization of Islam in Indonesia."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42(1), 39-66.
- King, Dwight Y. 2003. *Halfhearted Reform: Electoral Institutions and the Struggle for Democracy in Indonesia*. Westport, Connecticut: Praeger.
- Liddle, R. William and Saiful Mujani. 2007. "Leadership, Party and Religion: Explaining Voting Behavior in Indonesia."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0(7), 832-57.
- Machmudi, Yon. 2008. "The Emergence of New Santri." In *Islamizing Indonesia: The Rise of Jemaah Tarbiyah and the Prosperous*

- Justice Party(PKS)*, chapter 1. Canberra: ANU E Press.
- Pepinsky, Thomas B., R. William Liddle, Saiful Mujani. 2012. "Testing Islam's Political Advantage: Evidence from Indonesia."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6(3), 584-600.
- Sukmajati, Mada. 2010. *How Islamic Parties Organize at the Local Level in Post-Suharto Indonesia: An Empirical Study of Six Major Islamic Parties in the Tasikmalaya District, West Java Province*. Ph.D. Dissertation at Heidelberg University.
- Tan, Paige Johnson. 2012 "Reining in the Reign of the Parties: Political Parties in Contemporary Indonesia." *As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0(2), 154-179.
- United States-Indonesia Society and the Asia Foundation. 2002. *Islam in Modern Indonesia*. Proceedings at a Joint Conference Sponsored by the United States-Indonesia Society and the Asia Foundation. February 7.
- World Bank. 1999.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1999*, Washington, D.C., World Bank.

(2013.09.29 투고, 2013.09.30 심사, 2013.10.26 게재확정)









**32. Jika pemilu menurut Anda penting, apa alasannya?**

1. Kewajiban sebagai warga negara
2. Hak sebagai warga negara
3. Sebagai pelaksanaan negara demokrasi
4. Untuk memilih wakil-wakil rakyat yang akan menentukan masa depan negara
5. Agar terbentuk pemerintahan yang dipercaya oleh rakyat
6. Lainnya, \_\_\_\_\_

(lanjutkan ke No.34)

**33. Jika menurut Anda tidak penting, apa alasannya?**

1. Hasilnya sudah diketahui sebelum pemilu dilaksanakan
2. Tidak ada gunanya (tidak berpengaruh terhadap kehidupan/kesejahteraan masyarakat)
3. Tidak berpengaruh terhadap kebijakan pemerintah
4. Hanya menghambur-hamburkan uang
5. Merasa tidak terwakili oleh wakil-wakil yang terpilih
6. Tidak jawab

**34. Bagi Anda, apakah ikut pemilu itu wajib atau tidak?**

1. Ya
2. Tidak
3. Tidak tahu

**PARTISIPASI**

Apakah Anda melakukan hal-hal berikut ini:		Pada 1. Pemilu 1997	Pada 2. Pemilu 1999
1. Ya	4. Tidak		
2. Tidak tahu	5. Berencana		
3. Tidak jawab			
35.	Mengikuti pawai partai		
36.	Menghadiri acara-acara kampanye/rapat partai		
37.	Mempengaruhi teman/keluarga/kerabat untuk memilih partai tertentu		
38.	Menyumbangkan dana, memberi/meminjamkan sarana/prasana untuk kegiatan partai.		
39.	Menjadi juru kampanye		
40.	Menjadi satgas, saksi, atau panitia pemungutan suara		

1. Apakah Anda menggunakan hak pilih Anda (mencoblos partai tertentu) pada pemilu:		1. Ya	2. Jika ya, sebutkan partainya
41.	Tahun 1955	2. Tidak	
42.	Tahun 1971	3. Lupa	
43.	Tahun 1977		
44.	Tahun 1982		
45.	Tahun 1987		
46.	Tahun 1992		
47.	Tahun 1997		

48. Jika Anda tidak menggunakan hak pilih pada pemilu 1997, apakah alasannya?

1. Tidak terdaftar sebagai pemilih
2. Tidak memenuhi syarat sebagai pemilih (belum cukup umur, dicabut hak pilihnya, alasan kesehatan)
3. Sengaja tidak ke TPS
4. Tidak cukup tahu tentang parpol
5. Tidak tahu tentang politik
6. Tidak berminat
7. Lanjutan, \_\_\_\_\_

#### KECENDERUNGAN PILIHAN

49. Saat ini muncul banyak partai. Tolong sebutkan partai-partai yang Anda ketahui. (maksimal 10 partai)

- |          |           |
|----------|-----------|
| 1. _____ | 6. _____  |
| 2. _____ | 7. _____  |
| 3. _____ | 8. _____  |
| 4. _____ | 9. _____  |
| 5. _____ | 10. _____ |

50. Dari seluruh partai yang Anda ketahui, sebutkan tiga partai yang Anda sukai. (urutan berdasarkan prioritas)

1. \_\_\_\_\_

252 동남아시아연구 23권 3호

2. \_\_\_\_\_

3. \_\_\_\_\_

**51. Di antara partai-partai yang Anda sukai, partai mana yang akan Anda pilih pada pemilu mendatang? (untuk DPR Pusat)**

1. Tidak ada
2. Belum tahu/pikir-pikir (ke No. 53)
3. Rahasia/tidak mau jawab (ke No. 53)
4. \_\_\_\_\_ (ke No. 53)

**52. Jika tidak ada partai yang dipilih, apakah alasannya?**

\_\_\_\_\_  
\_\_\_\_\_

**53. Faktor apa sajakah yang menjadi pertimbangan Anda dalam memilih partai? (boleh lebih dari 1, urutan prioritas)**

\_\_\_\_\_  
\_\_\_\_\_

**54. Program apakah yang Anda inginkan dari partai? (boleh lebih dari 1, urutan prioritas)**

\_\_\_\_\_  
\_\_\_\_\_

**55. Menurut Anda kriteria apa sajakah yang harus dimiliki oleh calon presiden Indonesia? (boleh lebih dari 1, urutan prioritas)**

\_\_\_\_\_  
\_\_\_\_\_

**56. Menurut Anda siapakah yang layak menjadi presiden Indonesia?**

- |                          |                            |
|--------------------------|----------------------------|
| 1. Belum tahu/tidak tahu | 3. Rahasia/tidak mau jawab |
| 2. Belum ada/tidak ada   | 4. _____                   |

**KEKHAWATIRAN DAN HARAPAN**

Apakah Anda khawatir atau tidak khawatir terhadap persoalan-persoalan berikut ini:		1. ya 2. tidak 3. tidak tahu
57.	Terjadinya kekacauan/keributan/bentrokan selama pemilu	
58.	Terjadinya kecurangan dalam pemungutan suara dan penghitungan suara	
59.	Ada orang memilih berulang kali	
60.	Ada tekanan untuk memilih atau tidak memilih partai tertentu	
61.	Ada pemberian uang atau barang untuk memilih atau tidak memilih partai tertentu	

62. Dari kelima hal tersebut, mana yang paling mengkhawatirkan bagi Anda?

\_\_\_\_\_

63. Percaya atau tidak percayakah Anda, pemilu yang akan datang berlangsung jujur dan adil?

1. Ya (ke No. 65)                      3. Tidak tahu (ke No. 65)  
2. Tidak                                      4. Tidak jawab (ke No. 65)

64. Jika tidak percaya, apa alasan Anda?

\_\_\_\_\_

65. Setuju atau tidak setujukah Anda dengan pelarangan pengerahan massa (pawai, rapat umum dll) selama kampanye?

1. Setuju                                      3. Tidak tahu (ke No. 67)  
2. Tidak setuju (ke No. 67)              4. Tidak jawab (ke No. 67)

66. Jika setuju, apa alasan Anda?

1. menimbulkan bentrokan/kerusuhan
2. Membuat perpecahan antarmasyarakat
3. bentuk kampanye yang tidak efektif
4. mengganggu ketertiban masyarakat
5. Lainnya, \_\_\_\_\_

**67. Apakah yang akan Anda lakukan jika menemui kecurangan selama pemilu?**

1. Diam saja
2. Menulis surat pembaca di media massa
3. Protes langsung kepada KPPS
4. Melaporkan pada yang berwenang
5. Lainnya, sebutkan \_\_\_\_\_

**68. Yakin atau tidak yakinkah Anda bahwa pemilu 1999 akan memperbaiki keadaan negara kita?**

- |          |                |
|----------|----------------|
| 1. Ya    | 3. Tidak tahu  |
| 2. Tidak | 4. Tidak jawab |

**69. Apakah pemilu 1999 merupakan satu-satunya jalan agar negara kita lebih baik?**

- |                   |                            |
|-------------------|----------------------------|
| 1. Ya (ke No. 71) | 3. Tidak tahu (ke No. 71)  |
| 2. Tidak          | 4. Tidak jawab (ke No. 71) |

**70. Jika tidak, apa saran Anda agar negara kita lebih baik?**

\_\_\_\_\_

No.	1. Apakah lingkungan di tempat tinggal Anda didominasi oleh:	1. Ya 2. Tidak (ke No. berikut) 3. Tidak tahu (ke No. berikut)	2. Jika Ya, sebutkan!
71.	Agama tertentu		
72.	Kelas sosial ekonomi tertentu		
73.	Suku bangsa tertentu		
74.	Asal daerah tertentu		
75.	Basis partai tertentu		

<Abstract>

Islam, Authoritarian Legacy, and Income in the  
Continuity of Indonesia's Party System:  
Based on Urban Survey Data

Jungug Choi  
(Konkuk University)

This study addresses the issue of the continuity in Indonesia's party system with respect to Islam, authoritarian legacy and income, using the urban-based individual face-to-face survey data. The existing studies focus on the historical continuity of the Indonesian party system between the 1955 and 1999 democratic elections. Yet, this study deals with the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between the pre-transitional 1997 election and the transitional 1999 election. It finds that the effect of Islam is largely independent of the democratic transition: Islam-oriented voters under the authoritarian rule tend to remain in the Islamic camp even during and after the democratic transition, while most of the secular voters prior to the democratic transition continue to shun any Islamic parties during the democratization. The effect of authoritarian legacy is also found to be meaningful, even if not as sticky as Islam. Finally, the variable of income is significant. Contrary to the popular belief, the PDIP is not a party of the urban poor but the PPP is the urban poor's favorite choice. This implies

256 동남아시아연구 23권 3호

the linkage between poverty and political Islam.

**Keywords:** Political Cleavages, Party System, Islam, Nationalism,  
Secularism, Authoritarian Legacy, Income, Indonesia